

## 가축전염병 발생주의보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국의 소 3,106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청검사결과 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기병 및 추잔병의 항체양성율은 각각 전국평균 23.0%, 30.2%, 28.6% 및 13.1%로 낮은 편이며, 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기병은 1995년에, 추잔병은 1996년을 기점으로 매년 항체양성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에 이들 질병의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니 사양위생관리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여름철 모기가 옮기는 소 모기매개 전염병인 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기병 및 추잔병과 돼지일본뇌염을 비롯한 광견병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 소 모기매개 전염병

아까바네병 및 추잔병은 모기가 매개하며 소에서 번식장애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아까바네병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처음 발생한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추잔병은 1993년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최초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유행열 및 이바라기병은 3~5년 주기로 모기가 매개하여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서 '88년에 약 5만두, '91년에는 약 3만두가 발생하는 피해를 보았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국의 소 3,106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청검사결과 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기병 및 추잔병의 항체양성율은 각각 전국평균 23.0%, 30.2%, 28.6% 및 13.1%로 낮은 편이며, 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기병은 1995년에, 추잔병은 1996년을 기점으로 매년 항체양성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농림부

있어, 금년에 이들 질병의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니 사양위생관리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 1. 주요증상

### ■ 아까바네병

큰소에는 증상을 보이지 않으나 임신한 소는 유사산, 조산 및 태수과다증을 보이며 때로는 난산 등이 발생한다.

갓 낳은 송아지의 경우 척추(S자 만곡)와 다리(주로 전지만곡)가 구부러지는 등의 체형이상이 발생하며, 허약우가 분만되고, 실명, 대뇌의 손실 등이 나타난다. 주로 초임우에서 많이 발생하고 한 번 감염된 소는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적다.

### ■ 소 유행열

6개월령 이하의 송아지에서는 발병이 적고 비육우나 영양이 좋은 암소에서 심한 증세를 나타내는 급성 열성전염병이다.

갑자기 1~3일간 높은 열이(41~42℃) 오르고 호흡이 촉박해진다. 식욕이 떨어져 사료를 먹지않고 되새김을 하지않으며, 설사나 심한 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거품섞인 침을 많이 흘리고 콧 등이 마른다.

젖소의 경우 우유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진다. 네다리의 관절이 붓고 관절통으로 잘 걷지 못하거나 서있지 못하며, 때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백신접종 방법 ☒

구 분	아까바네병	유행열
백신종류	생독백신	생독 및 사독백신
접종시기	5~6월초	5~6월초
접종방법	1회 또는 3~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3~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접종대상	임신이 가능한 암소 (모든 가임암소에 접종하되 2세 미만의 초임우에 대해서 우선 접종)	1세 이상의 모든 소
보강접종	매년 5~6월초 모기발생 이전에 1회	매년 5~6월초 모기발생 이전에 1회

### ■ 이바라기병

소에 유행열 바이러스와 이바라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되면 유행열의 증상이 악화되어 죽는 경우도 있다.

열이 오르고 궤양성위염 및 식도근육이 마비되어 사료를 삼키지 못하게 된다.

### ■ 쉼진병

아까바네병과 같이 번식장애를 일으키지만 유산, 사산, 조산 및 기형송아지등의 발생은 적고 주로 기립불능으로 포유가 곤란한 허약 송아지나 눈이 먼 송아지를 분만하는 것이 아까바네병

과 구별된다.

## 2. 예방대책

아까바네병 및 유행열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백신을 구입하여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바라기병 및 쉼진병에 대해서는 아직 실용화된 백신이 없어 시중에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모기구제와 소독이 중요하다.

또한 소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축사내 방충망 설치 및 주기적인 저독성 살충제 살포와 모기서식이 쉬운 작은 물웅덩이를 없애는 등 모기구제에 최선을 다하

# 특 집

여야 하며, 특히 축산단지 등은 하절기에 방역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소독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광견병

최근 경기도 파주를 중심으로 연천, 포천 및 강원도 철원 등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광견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금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소 6두, 개 8두 및 너구리 1두에서 광견병 발생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다. 광견병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8년간 발생이 없다가 1993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의 개에서 재발생한 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작년 5월에는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린 사람이 공수병으로 사망하였으며, 8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육중인 개에서 발생되어 주인에게 교상을 입힌 바 있고, 12월에는 강원도 속초시와 양양지역에서도 각각 너구리와 개에 광견병이 확인되는 등 발생지역이 강원도 영동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경기 및 강원지역의 기존 광견병 발생지역

에 대하여 전년도에 실시한 개 및 소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실태를 조사한 결과, 항체양성율이 매우 낮아 양축농가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이 미진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었고, 금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봄철 광견병 일제 접종시 농가인력 부족 등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저하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작년말에 광견병이 처음으로 확인된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는 금번 대형산불로 인해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백두대간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영남북부 및 충북의 내륙지역으로까지 광견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광견병은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재발생 초기에는 주로 겨울철에 다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강원도 영동 및 경북 북부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삼림황폐화로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함으로써 감염동물과의 접촉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먹이를 찾아 민가(축사)까지 내려와 사육가축을 공격할 경우 교상에 의한 개, 소에서의 발생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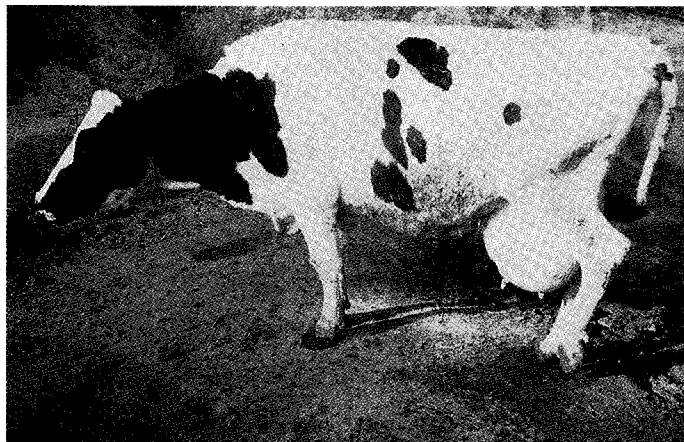
또한, IMF사태 이후 관리소홀로 버려진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야생동물화되면서 민가와 야산을 오가고 있어 이들이 광견병 전파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광견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축산농가는 개와 소 등의 가축에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행정철에 이들 지역을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여행객들은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 및 야생동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들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즉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

특히, 이들 발생지역의 시군에서는 등하교시나 훈련중에 발견한 야생동물이나 죽은 동물을 생포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관찰지역의 학교나 군부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기 바란다.

## 1. 주요증상

광견병은 개, 소를 포함한 온혈동물에 주로 감염되



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서 사람도 감염되어 공수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관견병에 감염된 동물은 평소와 달리 눈빛이 날카워지고 경계심이 강해지면서 미쳐 날뛰거나 신발, 나무토막 등을 물어뜯고 괴성을 지르며 발광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과민반응이 없이 혼미한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흥분기가 존재하지 않고 3~4일간 지속되면서 마비기로 접어드는 경우도 있다.

인후두, 목젖부위와 안면부 근육의 마비등으로 침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거품이 섞인 침을 흘리게 된다. 마비는 1~2일간 지속되고 호흡정지에 의해 폐사하며, 폐사는 임상증상이 시작된 후 2~7일내에 일어난다.

## 2. 예방 및 치료대책

관견병 예방약 주사는 3~5개월령 이상된 동물에게 접종한다.

소·말은 3ml, 개·면양 및 산양은 2ml, 소해완전견은 1ml씩 대퇴부 근육내에 매년 반복하여 예방접종을 하며, 3~5개월령 미만의 동물에 접종시에는 예방접종후 12개월령 때 반드시 2차접종하고 그후 매년 1회씩 보강접종을 실시하며, 새로 구입한 가

축은 전두수에 즉시 빠짐없이 실시한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는 근육 또는 피하에 1ml씩 예방접종한 후 매년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관견병으로 의심되거나 발병한 가축과 야생동물은 포획하여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가축방역담당기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감염동물에 교상을 입은 사람은 즉시 관할보건소 또는 인근병원에서 공수병 치료를 받도록 한다. ㉞

【질병문의 : 방역과 (031)467-1940, 1944, 병리진단과 1750, 1756, 바이러스과 1791, 1794】

# 천연 미네랄 공급 소식

- ❖ 모든 생명체가 천연미네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신비한 성장요소와 안전한 필수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 천연미네랄은 각종 미량미네랄을 필요한 조직에 공급하여 빠른 성장, 튼튼한 골격을 가진 어미소로 성장시켜, 송아지 잘 낳고, 유생산증가, 유지방 증가와 신선하고 안전한 고급우유를 생산케 한다.
- ❖ 천연미네랄은 반추위내 pH를 조절하는 최고의 완충제로서 각종 효소의 증식과 활성화로 더 완전한 소화와 영양분의 흡수가 가능케 되고 천연면역성과 항병력이 생겨 각종 질병을 이기고 장수하여 낙농가의 재산을 증식시켜 준다.
- ❖ 천연미네랄은 높은 양이온 교환능력을 가진 미세한 규산염콜로이드로 세균성 독성물질이나 화학적인 독성을 제거하는 능력이 크며, 사료에 의한 산독증이나 여름, 겨울철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지하여 온순하고 편안하게 오랜시간 누워서 반추하면서 건강하여 생산성을 높여준다.
- ❖ 천연미네랄은 집약낙농방식에 의한 고능력우와 국제경쟁력을 가진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 영양물질이다. 최소한 3개월 이상 공급하여 주면 몇배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 연락주십시오

**한국 NAF 미네랄**

WESTERN MINERALS CO. CALIFORNIA, U.S.A  
TEL: (031)964-6367, H.P: 011-446-8252